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22호

故 최속현 1주기

‘노동자’ 최속현을 기억하기

글 / 이준희 한겨레 기자

최속현 선수의 1주기를 맞이하며

글 / 강신욱 스포츠포럼실천상임대표

문체부, 故 최속현 선수 1주기 맞아 스포츠 인권 보호 점검

글 / 김경운 연합뉴스 기자

스포츠인권 硏 “故 최속현 동료 제소는 명백한 피해자 괴롭히기”

글 / 하남직 연합뉴스 기자

『 이재영 · 이다영 자매 』

흥국생명, 쌍둥이 등록 예정...논란 재점화 예고

[기자의눈] 온나라가 시끄러웠는데...쌍둥이 슬쩍 복귀하면 끝인가?

『 도쿄올림픽 』

[기고] 도쿄올림픽, 경기보다선수 안전이 먼저다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이준희의 여기 VAR] ‘노동자’ 최숙현을 기억하기

지난 4월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고 최숙현의 죽음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체육계 집단 따돌림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괴롭힘 등 팀 내 가혹한 노동조건과 연봉 계약직이라는 직업적 불안정성 등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스포츠 선수의 노동자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업팀 선수들은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노동자다. 하지만 선수들조차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스포츠인권연구소가 최숙현 1주기를 맞아 지난 19일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그 후 일 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회 스포츠인권포럼에서는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이 ‘스포츠계 특수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왜 선수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었다.

스포츠 선수의 노동자성에 주목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과 스포츠계가 선수를 쥐어짜 성적을 내려 하는 것은, 그 성적이 곧 이윤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스포츠 선수들은 그간 사회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다. 국위선양 같은 국가이데올로기가 다른 노동현장에 비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스포츠 선수의 노동자성을 은폐하는 데 일조해왔다.

선수가 아닌 노동자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먼저 스포츠의 특수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어떤 기업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강제로 합숙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스포츠계에서는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났고,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합숙문제는 스포츠계 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적됐던 악습임에도, ‘성적을 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여전히 횡행한다.

선수 당사자들의 주체화에도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그간 같은 세대의 다른 노동자들은 엠제트(MZ) 세대라고 불리며 ‘워라밸’을 외치는 동안에도, 스포츠 선수들은 특수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며 견뎌야 했다. 노동자 정체성이 약하다 보니 문제제기가 힘들었고, 선수들은 개개인으로 파편화돼 산발적인 폭로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는 틀을 이용하면 노동자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일상적인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안정적인 연대의 공간도 마련된다. 노동자는 뭉쳐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원리가 스포츠라고 예외일 순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프로야구 신인왕을 타며 혜성처럼 등장한 케이티(kt) 위즈 선발투수 소형준(20)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스마트뱅킹으로 틈틈이 적금을 든다고 했다. 영락없는 사회초년생의 모습이다. 취재하며 만난 다른 선수들도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평범한 직장인에 가까웠다. 최숙현이라고 다르진 않았을 것이다.

오는 26일은 최숙현의 1주기다. 이번 기일에는 스포츠 폭력과 관계기관의 외면 속에 죽어간 최숙현과 함께, 가혹한 노동환경에 시달렸던 ‘노동자’ 최숙현을 추모하면 어떨까.

최속현 선수의 1주기를 맞이하며



강신욱
스포츠포럼실천
상임대표
2021.06.26

고 최속현선수가 폭력을 못이기고 세상을 버린 게 벌써 1년이 지났다. 사회적 공분이 어떠했는지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다. 지도자들과 동료의 구타 행위도 그러했지만 최속현선수가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애타게 하소연했음에도 소위 보호 시스템이 철저히 무너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극도의 분노를 나타냈다. 이후에 체육계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그리고 체육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체육계 인권 개선의 커다란 계기가 마련된 셈이었다. 그러나 고 최속현선수의 아픔을 계기로 체육계 인권이 기대만큼 개선되었을까?

금년 봄에는 이재영, 이다영 자매로 상징되는 체육계 학폭 문제가 세상을 흔들었다. 학창 시절 발생한 과거의 동료간 폭력 문제가 새삼 체육계를 혼란에 빠트렸다. 억울한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해자로 낙인 찍히며 평생 몸담아온 코트를 떠나갔다. 비단 떠나간 선수나 지도자들만 그러했을까 하는 한숨과 아쉬움이 체육계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아주 오래된 얘기였든 불과 1년 전의 일이었던 폭력으로 인한 선수들의 고통과 아픔은 결코 끝나지 않고 지금도 어두운 한 켠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신체 폭력이 좀 줄었는지 모르지만 언어폭력은 여전히 심각히 잔재해 있다고 본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경기장에 가보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원망, 위협, 경멸, 거부, 적대 형태로 가해지는 언어폭력은 신체폭력 못지 않게 선수 개인의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남긴다. 고 최속현선수나 학폭 피해자들이 피를 토하며 고백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바로 언어폭력이다.

스포츠 인권센터든 윤리센터든 신체폭력이나 심지어 언어폭력이 곧바로, 혹은 시간 경과 후 대부분 신고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 최속현선수에 대한 배신이다. 체육계를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대형 사고만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등을 이용한 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당분간 1년에 한 두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일부 지도자들에게 거슬릴 수 있지만 선수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다수의 지도자를 보호하는 꽤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사 기관이나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년간 폭력을 경험한 선수 비율은 지난 10여년 간 일관되게 20% 내외다. 역으로 말하면 80% 내외의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승리의 압박감과 1년 계약직, 그리고 터무니 없이 낮은 급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 헌신하고 있다.

선수들에 대한 신체, 언어 폭력을 이 땅에서 근절해야 한다. 그리고 착한 대다수의 지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체육계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체육계 스스로가 크게 변해야 한다. 그것이 고 최속현선수가 우리에게 남긴 절규고 과제다. 다시 한번 고 최속현선수의 명복을 빈다.

문체부, 故 최속현 선수 1주기 맞아 스포츠 인권 보호 점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고(故) 최속현 선수 1주기(6월 26일)를 맞아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체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스포츠 인권 보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황희 장관은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대한체육회 조용만 사무총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등과 1년 전과 달라진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황희 장관은 회의 전 故 최속현 선수를 추모하면서 "다시는 인권 침해로 인해 꿈을 접는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체육계는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고, 스포츠선수들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달라"라고 주문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故 최속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여론이 들끓자 다양한 선수 인권보호책을 내놨다.

문체부는 "지난 1년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원칙 규정과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담당 인력을 27명까지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권 침해 사례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에 관한 제재도 크게 강화했다.

문체부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국가대표, 실업팀 및 프로스포츠 선수가 되기 어렵게 선발 과정에서 확인하고, 학교폭력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등 관계 단체에서 올해 8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문체부는 7월까지 실업팀 표준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 참가가 제한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회 참가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연계 구축 예정인 징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내용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일시: 2020. 7. 9(목) 10:00~12: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공동주최: 도종환, 박정, 이상헌, 김승원, 유정주, 이병훈, 이상직, 임오경, 전용기 의원 | 주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2021.06.22

스포츠인권 연구 “故 최숙현 동료 제소는 명백한 피해자 괴롭히기”

스포츠인권연구소가 고(故) 최숙현 선수의 피해 사실을 증언한 현역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을 고소한 전 경주시청 선수 김모 씨를 향해 "공익제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스포츠인권연구소는 22일 성명을 내고 "고 최숙현 선수가 '나의 원수'라고 지목한 김모 선수(현 지도자)가 팀 내 폭행을 증언한 동료 선수들에게 최근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제보자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명백한 피해자 괴롭히기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는 고 최숙현 선수가 일기 등을 통해 '가혹행위를 한 선배'로 지목했다.

다만 최숙현 선수의 유족은 김모 씨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김모 씨는 최근 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에게 '훈련 중 과실로 다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당한 선수 2명은 '최숙현 선수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앞장선 것에 대한 복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jiiks79@yna.co.kr



흥국생명, 쌍둥이 등록 예정... 논란 재점화 예고

학창 시절 폭력 의혹으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복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여일 흥국생명 단장은 지난 22일 한국배구연맹(KOVO) 이사회에서 선수 인권 센터 발족을 제안하며 쌍둥이 자매를 다가올 2021-22시즌 선수로 등록하겠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재영은 흥국생명에서 그대로 뛰되 이다영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고교 시절 학폭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인터넷에서 제기됐고, 두 선수는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소속팀 흥국생명은 두 선수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지의 자체 징계를 내렸고 대한배구협회 역시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하며 다가올 도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이후 두 선수는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터키의 한 스포츠 에이전시는 이다영의 그리스 리그 입단 소식을 전해 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한편, V리그의 다음 시즌 선수 등록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 선수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분명한 점은 이들과 구단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기자의눈]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쌍둥이, 슬쩍 복귀하면 끝인가?

지난 2월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학교 폭력' 사태로 크게 시끄러웠다. 여자 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이상 25·흥국생명) 쌍둥이 자매가 '학폭 사태'의 시발점이었고 이어 꼬리를 물고 다수의 종목으로 퍼졌다. 여파는 상당했다. 온 나라가 들썩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소란은 줄어들었고, 논란에 휘말렸던 이들은 최근 들어 하나둘씩 복귀하고 있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한 남자배구 송명근은 OK금융그룹과 재계약을 맺었고 다음달 입대 예정이다. 삼성화재 소속이던 2월 학교 폭력 사태 등의 이유로 은퇴를 선언했던 박상하는 현대캐피탈로 유니폼(제복)을 갈아입었다. 여기에 큰 이슈가 머잖아 등장한다. 이재영, 이다영의 코트 복귀도 사실상 확실시된다. 흥국생명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국배구연맹(KOVO) 이사회에서 쌍둥이 자매를 선수등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KOVO 선수등록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이재영은 V리그로 돌아가고, 이다영의 경우는 해외로 이적시키겠다는 구상까지 덧붙였다.

언젠가 코트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복귀 시기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그 과정과 방법도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구단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흥국생명은 학폭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때려 언제든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무기한'이 주는 어감이 언뜻 중징계로 보이나 각도를 바꾸면 '아무 때'나 돌아올 수 있는 장치다.

팬들을 기만했던 모습도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흥국생명 구단은 일찌감치 이재영의 V리그 복귀를 결정해 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공식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만 반복했다. 그러다 등록마감이 다가오자 '슬쩍' 진행하고 있다.

뜨끔없이 불거졌던 이다영의 그리스 이적설도 취재 결과 흥국생명이 직접 추진한 일이었다. 흥국생명 관계자가 국내 한 에이전트를 통해 터키 에이전시 잔(CAAN)에 이적 등을 문의했고, 그리스 구단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배구 관계자는 "뻔히 보이는 일들을 왜 계속 거짓말로 숨기는지 의아하다.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언젠가 두 자매가 코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배구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다. 좋은 재능을 지닌 선수들이기에 선수생명이 마감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배구계를 넘어 스포츠계 전반이 흔들렸을 정도의 파장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배구팬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화나게 만들었던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그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단이 쌍둥이 자매에게 투자한 돈, 다음 시즌 리그에 나서야 하는 전력만 생각했기에 가능한 행동이다. 선수들 역시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뒷전이 됐다.

이재영과 이다영 두 장본인은 학폭 사태가 터진 이후 공식 자리에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SNS에 글로 고개를 숙였고, 혹은 구단이 대신 사과했다. 그때 SNS에 올렸던 사과문은 사라진 지 오래다. 심지어 지난 4월 학폭을 폭로했던 폭로자를 고소할 것이란 입장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돼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다. 폭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피해가 컸다는 이유에서였다. 쌍둥이 자매가 곱씹어보니, 자신들이 입은 피해만 떠올랐던 모양이다. 과연, 정말 미안한 마음은 있을까 수많은 물음표들이 떠다니고 있다. 그랬던 이들이 몇 달 조용해지자 슬쩍,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라면 둘의 코트 복귀는 확실시된다. 많은 배구 관계자들은 벌써 걱정이 크다. 과연 누가 그들의 복귀를 보며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흥국생명과 쌍둥이 자매는 "잘하니까"만 외치고 있는 모양새다.

[기고] 도쿄올림픽, 경기보다 선수 안전이 먼저다

도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23일 개막을 앞두고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개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소하자'는 응답이 83%나 된다. 5월 초 하루 7000명까지 치솟았던 확진자가 최근 2000명 선으로 줄었으나 누적 확진자는 이미 78만 명을 넘었다. 사망자도 1만4000명을 넘었다.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는 387만명을 돌파했다. 1차 세계대전 때 835만 명 희생된 사실을 생각하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비참한 상황이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아예 취소하자는 주장이 일본 안팎에서 여론의 공감을 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측면도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을 보면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 제1항은 "올림픽 이념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추구하는 것이며 스포츠를 통한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한다. 더구나 도쿄올림픽 개최는 올림픽 헌장 제27조 6항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치적 의도로 올림픽이 강행되고 있으며,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과 이념을 상업적 목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일본 지도를 게재하면서 독도를 포함한 것도 큰 문제다.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여서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남북단일팀의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려 하자 IOC가 제동을 걸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포함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로 IOC가 독도를 삭제하도록 한국 측에 권고했고 IOC 지적을 받아들여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웠다.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국가적 자존심과 일부 정치인의 아집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강행한다면 먼 훗날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긴급사태가 선언되고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IOC와 일본 정부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쿄올림픽은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최한다 해도 해외 관중은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20년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이겨낸 '일본 부흥'의 상징적인 행사로 삼으려고 했다. 일본의 국가적 자존심, 정치적 이해관계, IOC의 상업성이 맞물리면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토머스 바흐 IOC 위원장이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려는 것은 막대한 TV 방송 중계권 수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IOC는 중계권 계약을 탄 방송사로부터 천문학적 금액의 중계권료를 받기 때문에 올림픽을 어떻게든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와 IOC는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도쿄올림픽 취소를 검토하길 바란다. 올림픽을 정치적·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올림픽을 강행할 것인가. 국가를 위해 수년간 피땀 흘린 선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올림픽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 입장이다.

스포츠의 최고 가치는 개인의 행복 추구다. 어떤 메달도 인권보다 가치가 높을 수 없다. 국위 선양이 선수 개인의 행복에 앞설 수 없다. 올림픽 경기보다 선수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먼저다.

체육시민연대 소식

체육시민연대 CNet 포럼 개최

일시 : 6/25(금) 오후 4시

주제: [스포츠클럽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과제]

◇ 토론

주성택 | 한국스포츠미래전략연구소 소장

주재현 | ESPOUSE EARTH 대표(변호사)

허현미 |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 사회

홍덕기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발제

조영웅 | 변호사

주간 스포츠 소식

철인3종 최숙현 1주기, 가해자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5_0001489448&cID=10810&pID=10800

고 최숙현 1주기... "폭행도 피해자 방치도 여전, 안타깝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4731

故 최숙현 1주기... 최영희씨 "딸이 폭력의 마지막 희생자이길"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4028800007?input=1195m>

'스포츠클럽법' 스포츠 생태계 변화의 시작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00299.html>

국회 교육문화포럼 '한국형 스포츠클럽 성공 방안' 토론회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6252117003&sec_id=530101&pt=nv

'스포츠영화제'라는 즐거운 상상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6240300025>

학교 폭력·인권 침해 하면 국가대표 자격 '박탈'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231625011419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